

*사회경제적 자구 능력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개선합니다.*

## 미주 국제 소롭티미스트

젊은 회원 유지 및 참여 증진

2016년 6월 20일 수요일, 40세 이하 소롭티미스트 회원 5명이 모여 우리 단체의 젊은 회원으로 활동하며 겪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SIA의 회원 관리 담당자들이 이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날의 대화 주제를 개략적인 요약 형태로 소개합니다. 소롭티미스트 클럽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젊은 회원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 소롭티미스트의 젊은 회원층은 봉사의 기회를 가치있게 여기지만, 대다수의 우리 회원 및 클럽들이 전통적으로 정의하는 봉사와는 다른 의미로 봉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에서 생각하는 봉사란 상 또는 상금 수여와 기금 조성 활동인데 반해, 젊은 회원층은 봉사란 실질적인 경험 위주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젊은 회원층이 생각하는 봉사 기회란 여성 및 소녀들이 있는 지역사회로 뛰어들어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입니다. *드림 잇, 비 잇*이야말로 젊은 회원층을 봉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녀들과 얼굴을 맞대고 멘토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젊은 회원층이 SIA의 미래를 보는 시각은 기존 시각과는 매우 다릅니다. 특히 대부분의 소롭티미스트 운영 기능을 규정하는 형식과 절차를 간소화한다든가, 기술을 활용하여 클럽 운영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젊은 세대로서 클럽 안에서 변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젊은 회원들은 재정적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여깁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회비가 지나치게 높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뿐 아니라, 회의 참여 시 부담해야 하는 식사 비용이나 의무 기부금 때문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느낍니다. 이같은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단 소수의 클럽만이 젊은 회원들에게 회비 납부 방식이나 식사 참여에 선택권을 주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신용카드로 회비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기존의 젊은 회원층은 우리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지 잘 알기에 '어떻게든 재정적 부담을 해결'하지만, 다른 젊은 여성들을 신규 가입시키는 일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또한 젊은 회원들은 '늘 자선만을 구걸하는' 단체로 비춰지거나 다른 회원들의 돈에 의지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 리전 차원의 컨퍼런스나 컨벤션에서 소롭티미스트 커뮤니티를 접하는 기회는 젊은 회원층에 있어 값진 교육적 경험을 선사할 뿐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여성들과 친목을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재정적 부담 문제에 관해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들 이벤트는 참가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젊은 회원층이 참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젊은 회원층은 리더 지위를 맡기 전에 충분한 훈련이나 오리엔테이션을 다 받았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기존 리더들이 용기를 심어 주면 리더십 역할에 참여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젊은 회원들은 리더십 역할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회원들과 이전 리더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